

建築月間情報

3, 21 ~ 4. 20

이번 호부터 “建築月間情報”의 고정란을 신설하여 建築活動의 資料로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각종 情報媒体로부터 대단히 많은 量의 情報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누구나가 다 일일이 檢索,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이것을 有益한 活動資料로 活用 하지 못하는 있는것이 실정이다.

이 “建築月間情報가” 長期的으로 쌓이고 이것을 돌이켜 음미해볼 때, 建築景氣의 予測이나 社会發展의 向方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建築에 관한 중요한 사료가 되기도 할것이다.

우선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主要日刊紙上的 報道記事를 발취 요약 하여 정보 발생순으로 정리하였다. 앞으로 대상 정체를 확보하고 요약 정리방법도 계속 연구 개선해나가고자 한다.

이 情報 중, 事實과 다르거나 誤解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곧 訂正追補코자 하며, 統者 여러분들께서도 그와 같은 부분을 발견하시면 本協 出版部에 알려주시기 바란다.

□ 서울近郊에 새 國際空港 건설 검토 朱安·牙山灣 일대가 有力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金浦空港은 서울도심에 너무 인접하여, 인구집중과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작년 하반기부터 특별작업반을 구성, 空港의 운영과 이전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서울 도심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의 해안지역(朱安이나 牙山灣일대)에 새 공항을 건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한다.

현재 확장을 서두르고 있는 金浦空港은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지만, 확장된 후에도 연간 출입승객 400~450만 밖에 수용할 수 없어, 84년에는 만원이 될것으로 전망돼, 80년 후반에는 새空港 건설이 불가피한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경제, 3/21)

□ 4개 法院庁舎 江南 이전계획 확정——大法院

大法院은 22일, 서울高法 등 서울都心에 있는 4개 法院과 司法研修院 등의 江南이전 5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大法院·法院行政処의 건물은 현 법원청사에 그대로 두고, 총예산 134억원을 투입, 금년부터 83년까지 서울高法·서울民事地法·서울刑事地法·家庭法院과 司法研修院을 서울 江南区 瑞草洞 종합터미널 옆 대지 30,371평에 이전토록 되어 있다.(서울경제 3/22)

□ 農村住宅改良事業 희망農家에만 추진, 내무부 당초방안 완화

내무부는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당초 목표인 5만 통에 구애되지 않고 자담 능력이 부족하거나 개량을 희망하지 않는 농가, 개량시기를 미루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개량 대상에서 제외시켜 추진키로 했다. (서울 경제 3/22)

□ 서울 大氣汚染 갈수록 심각

연세대 공해연구소가 26일 서울시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의 大氣汚染度가 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기준치인 0.06ppm을 넘는 날이 75년에는 6.25일이었으나 80년에는 80.8일에 이를것으로 추정되며, 오염물 배출량도 80년에는 1Km²당 1,007t으로 추정. 오염물질 배출 원인을 분석하면 현재 가장 주된 원인인 난방시설로 인한 오염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차량과 공해업소로 인한 오염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80년의 원인별 비율은 난방시설 34.3%, 차량 33.2%, 공해업소 25.2% 화력발전소 7.0% 등이 될것이라고. (동아 3/26)

□ 不急工事 30% 減縮, 4월 집행분 5~6월로 연기 —— 정부

정부는 소비절약과 주요 건축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착공키로한 3만 여건의 각종 정부공사중, 不要不急한 工事は 年間事業物量의 30%를 축소하고 종래 4월 중에 집행되었던 工事發注를 5월말에서 6월초로 늦춰 집행할 계획이다. 이 조치의 대상에는, 半月工業都市 건설

을 비롯 정부 제2종합청사를 포함한 果川都市건설, 忠州댐 건설, 일부 工團의 부대시설, 溫山工業基地 조성 등과 聚落構造改善事業 및 政府와 公共機關의 新築 社屋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제, 3/30)

□ 1979년도 建設業체 都給順位 발급

건설부가 31일 발표한, 건설공사 도급한도액 순위 중, 1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는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 4/1)

79 순위	78 순위	상 호	79 순위	78 순위	상 호
1	1	現代建設(株)	6	6	美隆建設(極)
2	3	大林産業(株)	7	5	極東建設(株)
3	2	東 亜 建 設 産 業(株)	8	10	大宇開發(株)
4	7	漢陽住宅(株)	9	8	進興企業(株)
5	4	三換企業(株29)	10	29	라이프住宅開發(株)

□ 工場用地 面積制限, 초과분은 重課稅

정부는 企業이 지나치게 많은 工場用地를 점유 하는것을 막기 위해 40개 업종별로 工場의 기준 면적율을 제정 고시하고, 기준 초과시에는 非業務用地土로 간주 重課稅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2일부터 신축 공장에 적용하고, 기존 공장은 80년 4월부터 실시하되, 이전축진지역 및 工團內 공장은 적용 제외 된다. 工場地地面積이 3,000m², 건축면적이 1,000m²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자(증설 경우는 기존 및 증설분 합계)는 事前에 市道知事에 신고하여 工場立地基準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工場立地基準은 ① 기준공장 면적율(공장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業種에 따라 5%~40%로 규정하고, ② 綠地등 環境施設面積率도 별도로 책정, 垡地面積이 3,000~1000,0m² 공장은 綠地面積率을 10,000m²이상인 공장은 20%이상으로 하되 綠地를 포함한 環境施設面積을 일률적으로 25% 이상 확보토록 했다. (동아 4/2)

□ 작년 지은 아파트 不實滿發, 천장서 물새고 하수구 막혀 등.

작년에 지은 많은 아파트들이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천장서 물새고 하수구가 막히며 심지어 문짝이 맞지않아

入住者들이 内裝을 완전히 다시 해야 하는 등 막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모델 하우스와는 전혀 다르게 지어놓고 시치미를 뻐고있는 실정이다.

최근 2~3년 동안에 분양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이렇게 부실한 것은 ① 建資材波動 등으로 不良建資材를 마구 사용한다 ② 中東建設進出로 技能工이 크게 부족하고 ③ 建設業者들이 경비 절약을 위해 내장공사는 물론 2~3 차례씩 릴레이식으로 均소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중앙, 4/3)

□ 내년도 정부 건설공사가 단가 28% 인상

— 경제기획원

3일 경제기획원이 각부처에 시달한 「80년도 예산편성 기준」 따르면 내년도 정부건설공사비 단가 인상율은,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건설공사비가 지난 1월 현재 실제보다 15% 낮은 선이고 앞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13%를 참작한 것이다. 내년 1월까지 상승 전망은 資材費 10%, 人件費, 20%로 추산했다. (중앙 4/3)

□ 아파트容積率 180%로 줄여,

共同住宅事業承認基準 일부변경 — 서울

서울시는 7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사업승인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

건폐율: 아파트는 종전과 같으며(5층 이하 20%, 6층 이상 18%), 연립주택은 40%에서 30%로.

용적율: 아파트는 200%에서 180%로, 연립주택은 종전(100%)과 같다.

층수: 아파트는 제한이 없던것을 10층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적정 층수는 종합조정하도록 하고, 연립주택은 2층까지에서 3층까지로.

동간거리: 1.2배에서 1.25배 이상으로. (서울경제, 4/8)

□ 제2 政府庁舎 起工, 果川에 7만평, 내년까지 經濟部 如 이전계획

10일 기공된 제2 정부청사는 首都圈 인구소산과 부족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되는 것으로서, 1단계로 249억원을 투입, 垡地 7만평에 연건평 2만2천평 규모의 청사 1, 2동과 지하공용시설(SUNKEN) 안내소 판리소 등 건물 5동을 80년까지 완공, 경제부처를 이전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4/10)

□ 서울 都心再開發地區 15층 이하로, 고층화계획수정

서울시는 6개 都心再開發地區에 20~30층의 고층건축물을 계획하였으나, 최근 건설부 등 정부관계부처는 都心圈 交通難 완화문제와 관련하여 신축건축물의 높이를 대폭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당국은 건설부로부터 고도제한 세부사항이 결정되는대로 앞으로 추진할 모든 再開發事業計劃을 수정할 방침으로 있으나, 15층 이하로 제한될 경우, 사업주들이 投資效果등을 감안 비싼 대지에 작은 건물의 건축을 기피할 것으로 보여 층수를 낮추는데 따른 별도의 보완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都心再開發事業에 큰 차질이 빚어질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시행토록한 都心再開發事業地區는 다음과 같다.

- ① 陽洞 제 7 지구(大字開發), 대지 5,642평, 지상25층, 지하 3층, 연면적 24,000평의 호텔 건축.
- ② 西大門 제 14 지구(商工會議所) 대지 3,459평, 지상18층, 지하 3층, 연면적 18,763평의 사옥 신축.
- ③ 西小門 제 4 지구(大旺興業), 대지 2,166평, 지상20층, 지하 3층, 연면적 14,515평의 사옥신축.
- ④ 乙支路 1 街 제 6 지구(東山건축) 대지 1,097평, 지상 25층, 지하 4층, 연면적 9,835평의 호텔 건축.
- ⑤ 南大門路 5 街 제 1 지구(延世大), 대지 3,260평, 지상 30층, 지하 5층, 연면적 25,314평의 사무실건물 신축.
- ⑥ 乙支路 2 街 제 10 지구(內外興業), 대지 1,250 평, 지상13층, 지하 4층, 연면적 9,952평의 사무실 신축. (중앙, 4 / 10)

□ 아파트 모델하우스 규제

건설부는 11일 「見本住宅 建設 및 管理에 관한 處理指針」을 마련 각 시도 및 주택건설회사에 시달하였다. 이 지침에 의하면 건축자재는 반드시 KS 품만으로 의무화하고 시공도 모델하우스와 실제주택이 같아야 하며, 각종 建築資材 電氣 및 衛生 暖房機器 등은 메이커 품질 규격 등을 분양승인신청시에 준공검사권자에게 미리 제출케 하므로써 준공검사때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때에는 준공검사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동아, 4 / 11)

□ 慶州 普門觀光團地 1次工事 준공

날로 증가하는 외국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慶州에 마련된 普門觀光團地는 지난 74년 착공, 4월 6일 1차공사를 준공 개장하였다. 총 3백13만5천평의 단지 안에는 48만평의 호수, 40만평의 골프장과 각각 300실 규모의

慶州조선호텔 및 慶州 도류 호텔, 700석 대회의실이 있는 관광센터, 기타 종합청사, 普門호텔학교 등이 있다. 이 단지는 IBRD(세계은행) 차관 2,500만 달러를 포함 288억원의 정부예산과 민간자본 115억원 등 모두 407.3억원을 들여 1차공사를 끝낸것이다.

정부는 계속하여 81년까지 24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1,600실 규모의 관광호텔 9개를 추가하고 위락 시설을 확충 국제수준급의 綜合觀光休着團地로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4 / 11)

□ 그린벨트 불법 개간, 5월부터 집중 단속

정부는 그린벨트의 관리를 강화. 이안에서의 不法 土地 變更形質이나 임목벌채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물의를 일으킨 그린벨트안 별장 개축과 불법토지 형질변경을 계기로 고위층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단속은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내무부 국방부·건설부 합동으로 실시된다(중앙, 4 / 12)

□ 올해 都市小公園 135개소 조성키로——내무부

내무부가 12일 확정된 바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한 30개 도시의 주택가에 총 135개소에 달하는 도시 소공원을 52억 9천만을 투입, 새로 조성키로 하였는데, 이 소공원은 200~500평의 어린이 놀이터 규모로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게 된다. (중앙, 4 / 12)

□ 서울 15층이상 3개 건물, 新築工事 잠정 中止令

서울 도심의 人口分散과 交通難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신축건물 고층제한 방침과 관련, 앞으로 실시할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을 수정키로 한 서울시가 이미 도심재개발사업이 착수되어 건축중인 다음 3개 빌딩에 대해서도 지난 3일 잠정적으로 15층 이상 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렸음이 11일 밝혀졌다.

① 大韓教育保險빌딩(종로 1가), 77년 10월, 지상22층 지하3층 연면적 2만8천여평규모로 착공. 현재 22층까지 골조공사 완료, 공정 75%. 80년 6월 준공예정.

② 大韓火災海上保險빌딩(南倉洞), 78년 6월, 25층, 지하4층 연면적 1만5천평규모로 착공. 현재 18층까지 골조공사 완료, 공정 60%. 80년 6월 준공예정.

③ 韓一銀行本居(南大門路 2 街), 78년 8월, 지상 2층 규모로 착공. 현재 18층까지 골조공사 완료 공정 55%. 80년 5월 준공예정.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건설부가 검토중인 고층건물 규제조치가 신축중인 건물에까지 적용될 경우 완공후 철거보다는 현재 공사를 중단하는 편이 사업주의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지시킨 것」이라 하였다. (중앙, 4 / 12)

□ 서울都心 高層新築規制 黃反紙上토론

서울시는 20~30층의 고층을 짓도록 이미 사업승인이된 6개 도심 再開發事業計劃을 백지화 하였다. 이와같은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모은다. (중앙, 4 / 16)

政策당국의 立場……불과 9.2km²(278만평)정도인 4대안 都心圈에 대부분의 중요기관, 15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밀집되어 있다. 이 바람에 상주인구 16만인데 540만이 매일 집산한다. 거기다 20~30층짜리에 낮은 건물이 끼어스카이 라인이 들쭉 날쭉하는 등 도시 미관이 말이 아니다. 따라서 인구분산 교통난 완화, 도시미관을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신축성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해제 되어야 할 것이다.

康炳基(한양대 도시공학과)도심의

인구분산과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신축건물 높이의 제한방침에 근본적으로는 공감한다. 그리고 이번 규제대상이 된 건물의 경우 허가당시와 현재와는 都市環境의 惡化등 변화가 많기 때문에 공사중에 中止令을 내렸다고 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몰아붙일수만은 없을것 같다. 계속 제한할 방침이라면 일률적인 層數制限보다는 容積率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金安濟(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심부로 몰리는 교통난을 완화하고 都市集中機能을 분산시키는 案으로서는 미흡하다. 서울의 경우 道路率은 낮지않으나 幹線道路는 8~10車線으로 지나치게 넓은데 비해 中小路는 거의 없어 交通混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로망 재정비도 문제해결의 키가 될 수 없고, 무엇보다 4大門의 都市再開發에는 보다 계획성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朴容相(大韓商議 이사)……新築中 工事 中止令은 여러가지 큰 손실이다. 정책의 잦은 변경은 經濟的 損失뿐 아니라 국민의 信賴度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교통난을 이유로 고층을 규제한다는데에도 타당성이 의심스러우며 평면적 확산만이 옳바른 방법인가 검토해야 한다. 오히려 都心을 고층화하여 교통난을 완화하는 외국도 있다. 고층빌딩의 상층부를 아파트로 하고 하층부를 사무실로 하면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 「앞으로 내다보는 결정」이 있어야겠다.

□ 11층 이상 新築아파트, 10층 이하로 設計變更을 시시——서울시

서울시는 18일 신축할 아파트의 층수를 10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아파트를 신축하겠다고 서울시에 事業承認申請한 한양주택 등 5개 아파트 건설업체의 신청서를 반려하고 10층 이하로 설계변경토록 지시하였다.

서울시는 현재 江南地域에 12~15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供給施設·通問題·公害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일으킬것에 대비 연초부터 고층화 방지의 원칙을 세우고 검토한 결과 10층 이하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동아, 4 / 18)

□ 서울종합운동장 室内(잠실) 體育館 준공, 장충체육관의 2.5배

서울시는 서울종합운동장의 기간시설인 실내체육관을 76년 11월 착공, 2년 5개월 만에 18일 준공하였다. 총 공사비 54억원. 7천 8백여평 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로 건설된 이 室内體育館은 수용규모 2만(장충 체육관의 2.5배)으로서 563평의 本競技場과 223평의 補助競技場 2개를 갖추고 있다. 경기장 바닥은 미국산 단풍나무로 마감되었고 천정조명은 2000lx, 이와는 별도로 컬러TV방송에도 지장이 없게 5,000lx의 집중조명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밖에 주변 4만 7천평의 고수부지에는 1만대를 일시에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시설이 있다. (서울경제, 4 / 19)